

문 의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과 장 전현진 사무관 이주미	042-481-5460 042-481-5116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과 장 구영민 서기관 남성호	042-481-5331 042-481-576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7월 19일(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7월 18일(수)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해외 디자인 출원 보다 편리하게!

- 한-중 디자인 우선권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개시 -

- ☐ 앞으로 출원인들은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를 중국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중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20일(금)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써, 종전에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 받아 상대국 특허청(2국)에 제출해야 했다.
 -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으며, 특허청은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5년 ‘디자인 분야 선진 5개국*’ 회의에서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017년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전세계 디자인 출원의 약 90%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 협의체

- 이러한 합의에 따라 특허청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실질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 이제 오는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서에 출원번호 등 관련 정보만을 기재하면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해당 우선권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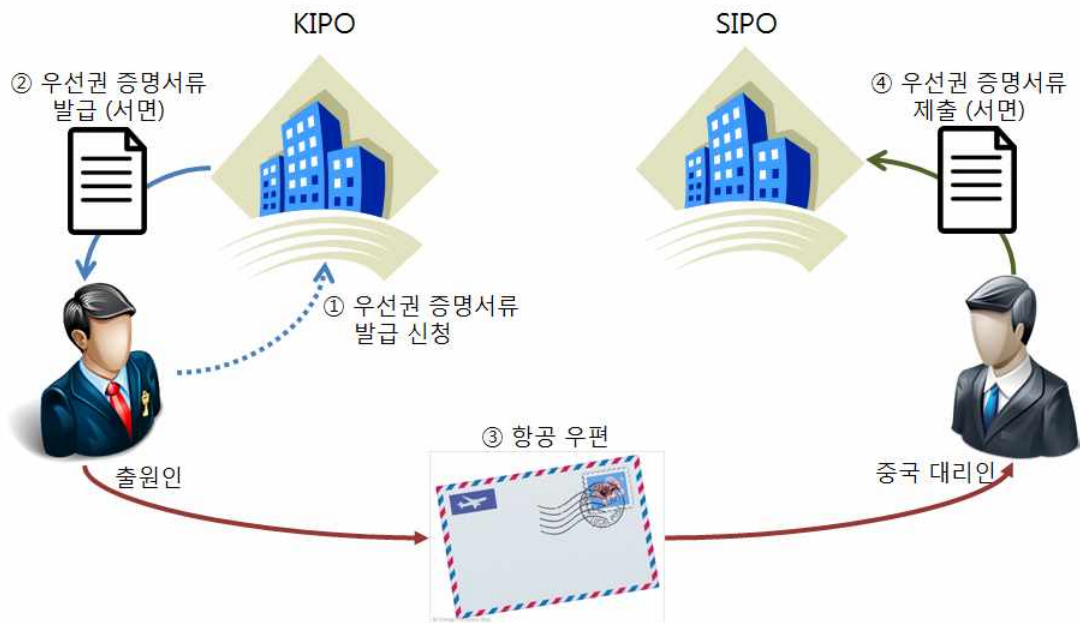
-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아직까지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 한국과 중국의 교환이 세계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출원인 편의 개선을 위해 전자적 교환 대상을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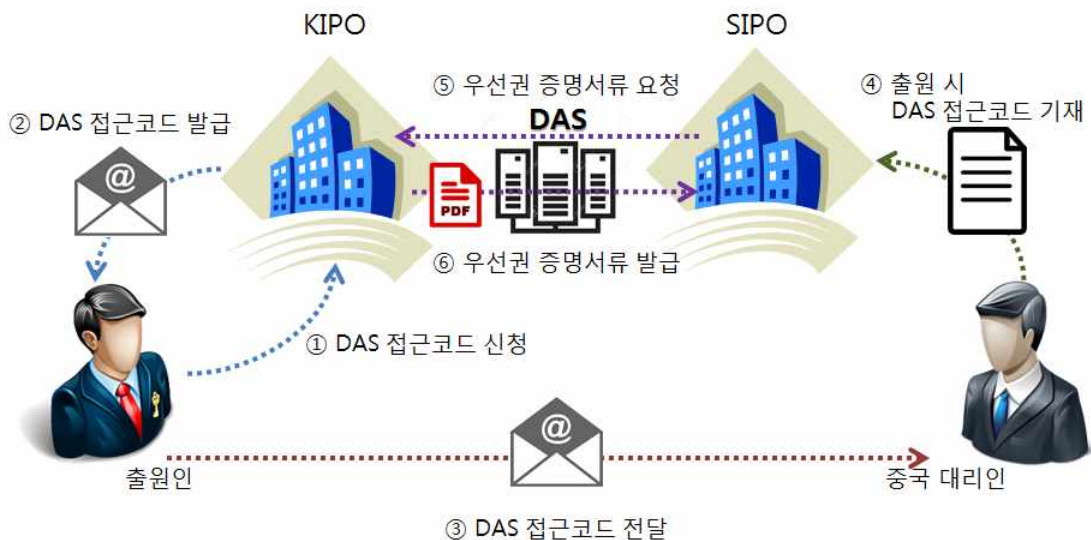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이주미 사무관(☎ 042-481-5116),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 정책과 남성호 서기관(☎ 042-481-57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서면 교환 방법(한국(1국)→중국(2국))



□ (개선) 전자적 교환 방법(한국(1국)→중국(2국), '18.7.20. 이후)



* DAS(Digital Access Service) :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 파일 교환 시스템으로서 회원국 간 미공개 서류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음

** DAS 접근코드(Access Code) : 잘못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교환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발행하는 4자리 코드로서 특허청은 출원번호, 출원날짜, DAS 접근코드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 함